

축 사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

환경부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의 「환경, 더불어살기Ⅱ- 불교 생태적 지혜와 환경」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우리나라 7대 종교와 환경부가 각 종교의 사상을 기반으로 종교단체 환경지침서를 공동으로 발간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. 물질중심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각박한 세태 속에서 정부와 종교계의 자연사랑을 통한 조화로운 삶의 추구는 우리사회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.

불교에는 법계연기(法界緣起) 또는 중중무진연기(重重無盡緣起)라는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. 화엄경에 나오는 말로, 모든 사물과 존재가 자유롭게 서로 의지하여 한없이 교류하고 소통하여 생겨난다는 말입니다.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(一即多多即一)인 것입니다. 자연과 인간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.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서로를 위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우리세대의 잘못된 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. 자연을 파괴하고 조화로운 인연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.

한국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1,700여년의 세월동안 사찰의 건축과 문화, 스님들의 삶 속에서 생태적 지혜로 담아 전통을 이어왔습니다. 이 책 곳곳에는 자연과 생명을 대하는 옛 스님들과 사찰의 소박한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. 요즘 이야기하는 생태적 삶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다른 존재와 자연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입니다. 이 책을 통해 스님들의 생태적 지혜와 이를 오늘날에 되살리는 불자들의 지혜를 접하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 인간의 무한한 이기심과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참다운 자기 본성을 회복하여 일체 중생이 고루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계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.

책자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종교단체환경정책 실천협의회와 환경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